

지역경제의 버팀목, 축제와 생활인구

자치CEO



강진원
강진군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제의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000개 이상의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공 축제와 민간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 축제를 포함한 수치이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른 수건이라도 짜내는 심정으로 축제의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축제가 직접적인 생활인구 증가로 나타나 즉시적인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진군의 경우 '2024 반값 강진관광의 해' 상반기 매출 분석 보고서의 신용카드 매출실적을 보면, H카드사의 관광관련분야 매출은 2023년 대비 -1.0% 조금 감소한 반면, S카드사는 +3.4%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축제가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준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표상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축제의 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축제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축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할인이나 무료 입장권 등 지역민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축제를 더 친밀하게 느끼고 경제

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축제의 수가 많다는 것보다, 지역별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축제임을 알린다면 주민들이 축제의 필요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일간신문 9월10일자에 칼럼을 보면 "강진군은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체류인구 늘리기에 성공했다. 농가에서 1주일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인 '푸소(FUSO)'를 브랜드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만7000여명을 불러들였고 농가에는 52억8000만원의 소득을 안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16일자 한 중앙 통신사 기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강진군에서 지방소멸 우수 대응사례 현장방문을 마친 뒤 연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당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자립도 문제가 참 심각하다.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법은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진군의 적극 행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였으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축제예산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안)"이라는 강진군의 제안을 행정안전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실하는 것은 축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며,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도 높아진다. 결국, 축제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생활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일상적으

로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출퇴근, 학교, 관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생활 인구는 지역의 경제활동, 문화적 특성, 서비스 수요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지역 정책 및 개발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러한 인구 변동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인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가지 방법 중 특정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의 수를 통해 인구 유동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통신 위치 데이터는 이동통신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인구 밀집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출입 통계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 패턴과 이동 경로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생활인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축제를 통해 각종 경제적 지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디딤돌'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며,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도 높아진다. 이처럼 축제의 각종 경제적 지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민 여러 분께서도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행사장의 비상대피로를 미리 숙지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음주, 쓰레기 불법 투기, 공

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축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며 더 나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작은 행동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쓰레기를 제자리에 버리고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제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중은 <여수경찰 동문파출소장 겸임>



전일광장 박안수 경제학박사·칼럼니스트

철마(鐵馬)는 달리고 싶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노래는 평상시에도 큰 울림을 주는데 비무장 지대(DMZ) 최북단 도라산역 앞에서 부르는 노래는 경건함과 함께 간절한 염원이 담기기에 충분하였다.

광주 남구에서는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교육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남구 소재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상·하반기 각각 2회씩 통일효도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물론 열차운행에 따른 일부 비용을 고향사랑기부금 계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상반기에는 남구 효천역에서 도라산역 그리고 파주의 비무장 지대의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장단콩마을까지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하반기 또한 9월24일 효천역에서 출발 동두천역을 경유 백마고지 전적지, 철원 평화 전망대,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표지판이 있는 최북단 월정리(月井里)역까지 왕복 800km가 넘는 거리의 통일효도열차를 운행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남구 통일효도열차를 보는 시각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염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었다. 1950년 6·25한국전쟁 시 숙수무력으로 경남 창녕 낙동강까지 후퇴하다가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9월15일 시행된 후 9월28일 서울 수복에 이어 우리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넘는 날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이후 3여 년간 한국전쟁 휴전조약을 맺은 시점에서 당초 북위38도에서 다시 휴전선이 확정되어 개성시 인근은 북한으로, 철원지역 등은 우리나라 영토로 확정되었다. 접경지대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시민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바라본 개성 송악산이나 북철원의 평강고원을 다녀온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다. 아직도 지구

상에서 분단국가로 남은 나라가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과거 화해분위기로 평화적인 남북대화가 긴밀히 이루어져 이산가족도 상봉하고 대북 쌀 지원과 개성공단을 설립하는 등 남북경제교류협력도 활발한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철수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일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부양과 함께 비난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듯 보인다. 이제 남북이산가족 중 생존하신 어르신이 4만 명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세대로 점점 희미해진 형국으로 다음 세대는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듯하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당시 모든 국민이 독립을 염원하였듯이 지금 우리는 평화통일을 독립 운동했던 심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생각이다.

예전 중국 열차 방문편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다. 즉 우공(愚公)이 산(山)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로 우공이라는 노인이 집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려고 대대로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고 하여 이에 감동한 하늘이 산을 옮겨 주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또한 수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일본 도몬 후유키의 '불씨'의 글처럼 최초의 작은 불씨 하나가 한 집 한 집 전달되면 결국은 나라의 불씨가 되듯이 조그마한 단초가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이제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떠나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남구 통일효도열차를 벤치마킹하여 장흥군에서도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를 전북 순창군에서도 군민 행복 통일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신청자를 받고 있다.

흔히들 꿈은 벽(壁)을 허물어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늦은 가을날 북쪽의 두루미가 자유롭게 날아와 따뜻한 철원군의 비무장지대에서 겨울을 나는 것처럼 155마일 휴전선을 남북한이 자유롭게 넘나들어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앞당겨질지기를 바란다.

독자투고

즐거운 축제 위한 시민의식 필요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지역특색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축제는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와 무질서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